



“불살생계의 사회화로 지구환경 살리자”

특집 좌담 **이제는 생명운동 시대**

참석자

현고 스님 조계총총무원 기획실장

진옥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이병철 씨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병인 씨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영국 키일대 교수(환경정치학)인 앤드류 톰슨은 현재의 환경운동을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에 대해 환경주의는 오염된 환경의 정화에만 관심을 쏟는 반면 생태주의는 그것의 원인이 된 사회구조, 인간의 가치관 등을 문제 삼는다고 설명한다. 이를 불교계의 환경운동에 대입할 때 '불교 환경운동'이란 말은 적절치 않으며 생태주의에 입각한 생명운동이란 표현으로 불리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분사, 한마음사랑방에서 열린 본지창립 7주년기념 '이제는 생명운동 시대' 특집좌담 참석자들 역시 생태주의적 생명운동의 핵심은 수행과 깨달음이 구체적 삶과 실천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와 생활속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연가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편집자 주>

사회자(윤재학 부장)=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념적 근거 등을 정리해 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왜 지금 불교환경운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병철씨=축일의 문명을-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죠. 오늘 환경문제는, 나와 다른 생명 혹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는 서구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대

생(衆生)과 사회적 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보살행이 미진했어.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거죠. 저만해도 제가 몸담고 있는 사람이 공단의 한가운데 남게 되자, 사찰도 이전 '환경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든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의 사상마저 끌어들이며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도, 정작 불교는 이를 활용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는 곧 생명이기엔 환경운동은 곧 생명운동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단어도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왜곡된 생명질서를 회복하고 본모습을 찾자는 조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즉, 6도중생과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사회, 생명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

사찰도 이전 환경안전지대 아니다

'心청정 國土청정' 환경보살 많아야

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요. 모든 보살들은 중생고의 해결을 위해 해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고'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환경보살'이 출현해야 할 때입니다.

현고스님=저는 종단 소임을 맡기 전까지 송광사에서 30여년을 살았는데, 세상으로 나와보니 불교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포교가 바로 환경운동이었어요. 임의단체로 5년간 활동하다가 3년전 환경단체중 처음으로 광주에서 '주암호보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환경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불살생계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승단 안의 계율이 사회적 계몽과 실천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자=불교 환경운동은 완벽에 가까운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역동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 환경운동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실천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듯합니다.

현고스님=불교에서는 인간을 표현할 때 중생(衆生) 즉, '못 생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구제의 대상이자 완성의 주체가 못

량소비를 전제로 한 대량생산이라는 물질적 욕망추구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리오환경회의 등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중심주의의 서구문명으로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중심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수행과 깨달음에 기초한 불교의 전통이 환경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교는 사찰과 산림 등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환경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뒷늦게나마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활동에 나선 것은 기존 환경운동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은 생물학적인 멸망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삶과 환경 돌아다니다

진옥스님=한국불교는 대승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을 도외시키고 기복과 개인적 수행 이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민주화의 진통 등 중생고

불교환경운동 어디까지

해방 이후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 산천은 많이 훼손됐지만, 자연이 이만하거나 유지되어 온 데는 산사의 역할이 컸다. 7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사찰에 산감(山監)이란 소임을 들 정도로 불자들은 산천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불교 환경운동은 1991년 3월 발족된 불교환경교육원의 환경교육과 실천이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몇몇 불자들이 공해추방운동연합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불교적 이념을 갖춘 조직이 지속성을 갖고 환경운동에 나선 것은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이다.

이듬해인 92년 2월 공해추방운동불교인도모임(공후불)이 창립되면서 교법사와 청소년들이 심포지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것은 사찰의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대중적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불교계 각



◁좌담 참석자들은 전지구적인 '환경고'를 해결시키는 '환경보살'의 출현이 시급하다며, 나의 삶과 세상을 정화하는 각성을 통해 예토를 정토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환경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병인= '운동'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환경 수행 또는 수행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그 말이 갖는 사회적 의미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불교환경운동은 불교적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처방전, 환경고(環境苦)라는 시대적 아픔을 해결하는 수행 활동이어야 합니다. 암스트롱이 달에서 지구를 처음 보았을 때 '생명의 공존'을 깨달았듯이 불교는 공생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살생의 생명중생사상과 만물평등의

회합사상, 무소유적인 삶은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행동규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곡된 생명질서 회복

이병철= '환경운동'이란 말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녹색연합은 10주년을 맞아 강령을 새로 쓰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환경'이란 말과 '운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너가 없다면 내가 없다'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자=새로운 생명운동을 위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점검이 필요한 듯합니다.

현고스님=60년대부터 공해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불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탄압했을 때도 저항하지 못했어. 그동안 반생명적인 일에 침묵을 지키면 불교가 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그런 아파 환경문제가 일제 상환에 도달한 때면이 아닐까요.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장과 도로공사 등으로 '취업'을 받게 할 '성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 속에서 중생구제의 한 방편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지난해 바티칸의 교황은 새천년 5면으로 이어질

환경분쟁 1백여건 겪으며

대응역량 축적-방향 재정립

단체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연합 활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것은 9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펼친 '95 청정 국토 한마당'이 처음이다. 이를 중심으로 재가자 중심의 연대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조계종에서는 95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96년 대대적인 지역개발과 그로 인한 국립공원내 사찰의 훼손과 맞물려 11월 22일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갖고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사찰환경 실태조사, 사찰환경분쟁 조정 및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 수립, 사찰환경에 관한 이론정립, 사찰

환경보존 시범지구 선정 및 운용 프로그램 마련, 불교환경지침서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 온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환경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불교계는 그간 많은 환경분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대응 역량을 축적시켜 왔다.

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경주 통과 반대운동은 96년 경주 도심 통과를 철회시키고 우회노선을 관철시켰다. 이미 90년부터 문제가 된 가야산 해인골포장 개발문제 역시 10년만에 백지화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0년도 불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리산담 건설 문제 역시 불교계와 종교, 시민환경단체의 결집된 힘으

로 올해 3월 백지화시켰다. 이밖에 인각사 군위담 건설, 금산사 모악랜드 건설, 문장대 용화지구 및 문경 봉암사 온천개발, 김천 직지사 인근 위락시설 조성 등 크고 작은 100여건의 사찰환경 분쟁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했거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환경분쟁을 겪으면서 불교환경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지리산살리기'를 백지화시킨 '범불교연대' 발족에 이어, 지난 달 6일 불교환경연대를 출범시켰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범불교 환경단체의 발족으로 불교환경운동은 종단 공식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보조를 나란히 하면서 각종 사찰환경분쟁의 공동대응은 물론 백두대간 보전운동 등 대사회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김재경 기자

강청화 큰스님 초청 호국영령 및 조상님 천도 대법회

오는 10월 21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

인간의 생명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조상님들도 모두 살아 계신다.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과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자손들에게 호소하는 영과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자손들에게 불운, 불행,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계에 계신 조상님께 진리의 경을 독송공양을 드려 진리를 자각하시도록 해 드리고 자손들의 수호를 빌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불치의 병과 계속되는 실패와 불행은 치유되는 것이다.

불자 여러분!

금번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근세 최고의 수행자 강청화 큰스님이 증명하시고, 영도스님이 직접 집전하시는 영가천도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은 반드시 동참하시어 가정에 행운의 문을 활짝여시기 바랍니다.

* "스님들요! 건봉사에 오셔서 부디 저희들의 해탈을 위해 독경 해 주십시오"

- 영가들을 대신해서 영도스님 합장 -

- 아 래 -

- 일 시 2001년 10월 21일 (음력 9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10월 20일 토요일 철야기도
- 장 소 금강산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 내 용 1부. 강청화 큰스님 영가 법문
2부. 천도의식 : 호국영령과 국군 전몰장병 및 조상님 천도재
3부.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진건
- 교통편 서 울 : 동산반야회 02-732-1215~6
진 여 회 02-821-3242 (011-216-3241)
부 산 : 부산 금강정진회 051-632-0383 (011-833-0383)
광 주 : 광주사암연합회사업부 062-653-5250 (011-604-2377)
(주)남부관광여행사 061-653-5270 (017-602-9792)
- 동참방법 천도재에 동참하실 분은 '우패' 관계로 사전 접수바랍니다.
동참금 : 30,000원 (한가족당) 농 협 : 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봉사 중무소 전화 033)682-8100, 8101, 8102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 3교구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영도 합장